

# 인민군군인들을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키우신 위대한 령도

정 대 봉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전기간 인민군대를 계급적각오가 투철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그 역할을 비상이 높여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 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군인들속에서 반제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계급 적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1권 7페이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품모인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은 군인들이 확고한 계급적관점과 립장을 가질 때에만 높이 발양될수 있으며 특히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이 1990년대 중엽이후 우리 나라 정세와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으로부터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라는것을 깊이 통찰하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인민군군인들을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키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인민군군인들이 높은 계급적관점과 립장을 가지도록 하는 사업에 힘을 넣으신것이다.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를 잡고 반제군사전선을 지켜선 우리 인민군군인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높은 계급적관점과 사명감을 지니고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지켜나가는것은 인민군대가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1990년대 중엽에 이르러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유화》정책을 쓰는 한편 남조선에 계속 신형장비들을 끌어들이면서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고있었다.

특히 주체89(2000)년에 들어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6월에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데 이어 10월에는 전례가 없던 조미공동컴뮤니케가 발표되었으며 미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정세의 극적인 변화는 군인들로 하여금 적에 대한 조그마한 환상도 가지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로부터 인민군군인들이 높은 계급적관점과 립장을 가지도록 그들속에서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선 인민군대에서 반제계급교양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4(1995)년 1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인민군대에서 반제반미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췌이며 첫째가는 투쟁대상이라고,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킨 침략자이며 우리 나라는 아직도 정전상태에 있다고, 우리는 우리 인민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 식민지통치에 있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로부터 얼마후인 1월 22일에 다시금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반일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일본군국주의는 어제도 오늘도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췌이라고, 인민군군인들에게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력사적으로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야수적만행과 그 침략적본성을 똑똑히 알려주어 그들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끝없이 증오

하고 천백배로 복수할 사상적각오를 굳게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정세변화를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주체89(2000)년 10월에도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백년숙적인 미제가 남아있는 한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구호를 절대로 내리우지 말고 미제와 한번은 반드시 싸워 결판을 내야 하며 인민군대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하지 말고 미제의 《미소전략》에 절대로 말려들지 말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계급적원칙에서 한결음도 물러서지 말고 혁명의 계급진지를 총대로 굳건히 지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여러 기회에 걸쳐 인민군군인들속에서 반제계급교양을 일관하게 들어쥐고나갈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모든 인민군군인들이 투쟁대상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고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인민군군인들이 자기의 계급적성격과 사명, 투쟁대상에 대하여 똑바로 알아야 계급의 전위투사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보다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1(2002)년 12월 당원들과 군인들과 인민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투철한 반제계급투쟁정신과 높은 계급의식을 지니고 원수들과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군인들이 투쟁대상이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도록 하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 여러 기회에 계급교양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며 군인들이 인민과 인민의 원수를 똑바로 가려볼데 대한 문제, 계급교양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진행할데 대한 문제 등 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모든 인민군군인들이 높은 계급적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계급의 전위투사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해주심으로써 군인들속에서는 계급교양의 도수를 강도높이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인민군군인들을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키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계급교양거점들을 새롭게 꾸리며 계급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려나가도록 하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선 계급교양거점들을 교양적의의가 있게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계급교양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7(1998)년 5월 인민군대에서 신천박물관을 위력한 반미교양, 계급교양장소가 되게 더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그리하여 신천박물관이 새롭게 꾸려져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에 대한 반미교양의 위력한 거점이 마련되게 되었다.

주체87(1998)년 11월 인민군군인들이 새롭게 꾸린 신천박물관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신천박물관을 반미교양장소뿐아니라 계급교양장소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인들과 인민들 특히 전연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이 신천박물관을 참관하도록 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통한 반미교양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주체84(1995)년 2월 조선동해의 어느 한 곳에 있던 《푸에블로》호를 미국침략선 《서먼》호가 수장된 대동강가에 끌어다놓고 미제의 침략적죄행을 력사적으로 폭로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는 대동강가에 끌려와

반미박물관으로 리용되게 되었다.

미제와 계급적원썬들의 귀축같은 만행을 보여주는 축도이며 력사의 고발장인 신천박물관과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통한 반미교양, 계급교양이 실감있게 진행됨으로써 군인들과 인민들은 미제와 계급적원썬들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인민군군인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리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4(1995)년 10월 계급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에 따라 인민군대에서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계급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인민군대의 정치기관들에서는 군인들을 높은 반일계급의식을 가진 투철한 혁명가로 준비시키기 위한 교양사업 특히 노래를 통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었다.

전군적으로 계급교양과 관련한 노래보급사업을 통하여 모든 군인들이 우리 인민의 비참한 과거를 한시도 잊지 말고 계급적원썬들을 끝없이 미워하며 그들과 끝까지 싸울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중대예술소조활동,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을 비롯한 군대예술활동에서도 계급교양주제의 노래들이 널리 불리워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특히 군대내 예술선전대들의 공연에 계급교양주제의 작품을 넣어 계급교양을 적극화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주체87(1998)년 8월 어느 한 인민군부대 예술선전대에서 준비한 《천백배의 복수를》이라는 선동극을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원썬놈들이 철원군 녀맹위원장을 학살한 내용을 내놓았는데 실지 있는 사실을 가지고 생동하게 잘하였다고, 계급교양을 자기 단위에서 있는 사실을 가지고 진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민군군인들을 계급적본분을 지켜 인민의 원썬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는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키워내도록 교양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리하여 인민군대에서는 예술선전대들의 공연종목과 중대예술소조들의 공연에 계급교양주제의 작품들을 반영하였으며 주체95(2006)년 일제의 악랄성을 보여주는 예술영화 《평양날과람》이 나왔을 때에는 영화학습과 실효모임을 잘 조직하여 반일교양을 실속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대화와 협상의 막뒤에서 벌어지는 적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경각성을 높일데 대한 학습과 강연을 조직진행하고 인민군신문과 방송에 반미, 반일교양과 계급교양기사들을 집중편집하여 군인교양에 적극 리용하였다.

인민군군인들속에서 적극적으로 벌어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의 계급교양들은 인민군군인들을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인민군군인들속에서 계급교양이 도수높게 진행됨으로써 인민군장병들은 계급투쟁의 제1선에서 당과 수령을 총대로 믿음직하게 받드는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더욱 억세게 자라나게 되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높은 계급의식을 가지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썬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려야 할것이다.